

순천 효천고 3인방 KIA 마운드 미래 꿈꾼다

1차 지명 입단 우완 정통파 차명진·이민우·유승철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프로 생활 어땠나요
팔꿈치 부상·수술 등 고전
자신과의 싸움 이겨내고
만행 이민우 데뷔승 '모범'
"부상없이 캠프 마칠 것"

학창시절 어땠나요
"초등생때 1kg짜리 아령 들고
운동하던 명진이 귀여웠죠"
"특하면 운동 안한다던 승철이
지금은 야구하길 잘했대요"

'순천 효천고 3인방'이 KIA 마운드의 미래를 꿈꾼다.

프로야구에서 '1차 지명'은 고향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인정을 받는 만큼 연구지 선수들의 자부심이다. 최근에는 순천 효천고에 시선이 쏠렸다.

지난 2014년 효천고 투수 차명진(22)이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뒤, 2015년에는 효천고를 거쳐 경성대를 졸업한 이민우(24)가 '호랑이 군단'의 1차 선수를 받았다. 그리고 2017시즌은 유승철(20)이 효천고 계보를 이었다. 최근 4년 동안 1차 지명 3자리를 효천고가 차지한 것이다. 모두 우완 정통파 투수들이다.

이들은 순천북초-순천 이수중 등문 사이이기도 하다. 이민우가 빠른 93이라 3년 터울인 이들은 효천고 시절에는 함께 운동한 적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기억은 남았다.

'만행'인 이민우는 "초등학교 때 (차)명진이 1kg짜리 아령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게 생각났다. 귀여웠다". '돌재' 차명진은 "(유)승철이는 특하면 야구 안 한다고 그랬다"며 웃었다. '막내' 유승철은 "지금은 야구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차명진의 이야기에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1차 지명 선수로 프로 입단의 꿈은 이뤘지만 이들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아니다.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던 차명진은 2014년 끝에서 진행된 투수조 스프링캠프에서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 수술과 재활의 시간을 보낸 차명진은 사회 복무 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KIA 선수로 돌아왔다.

경성대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이민우도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차명진과 같은 재활과 군 복무라는 코스를 밟았다. 유승철도 올 시즌 중반 팔꿈치가 좋지 않아 고전하는 등 세 선수는 모두 입단 첫해 부상과 싸움을 했다.

그래도 올 시즌 '만행' 이민우가 힘든 재활 과정을 이겨내고 마운드에 서면서 '효천고 3인방'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민우는 두드러진 배짱과 여유로 선발 데뷔전 승리 투수가 되면서 KIA 마운드에 색깔이 됐다. 한국시리즈 엔트리까지 노렸던 그는 선수 등록 일차 문제로 '가을 전지'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

의 이름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던 한 해였다. 이민우는 25일부터 대만에서 열리는 2017 아시아 윈터 베이스볼 대표 선수로도 선발됐다. 대회 참가를 위해 캠프에서 중도 귀국을 하게 된 이민우는 "올 시즌은 괜찮았다. 프로 데뷔해서 공도 던지고 새로 시작을 했다. 부상 없이 대회 잘 치르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명진이와 승철이가 모교 후배라서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신경 쓰게 된다. KIA에 효천고 출신들이 거의 없었는데 후배들과 함께 같은 팀에서 하게 돼서 좋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언급했다.

이민우의 움직임은 후배 차명진과 유승철에게는 동기부여가 됐다. 차명진은 "민우형과 재활을 했었는데 올 시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다. 그동안 부상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부상 없이 캠프 치르는 게 목표다. 아프지 않고 내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고 말했다.

처음 마무리 캠프에 참가한 유승철도 "학년 별로 명칭 색이 다른데, 3년 터울이라서 형들과 모두 같은 초록색 명찰이다 (웃음). 건강하게 캠프 끝내는 게 목표다. 내년 시즌을 위해 많이 배우고 건강하게 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키나와 클·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유승철(왼쪽부터), 이민우, 차명진이 오키나와 캠프장 보조경기장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기록으로 본 LPGA 박성현

비거리 늘고 정확성 높여

라운드당 4.56개 버디 사냥

■ 박성현 기록

■ KLPGA ■ LPGA

드라이브샷 비거리(yd)	265.59	270.815	+5.225
페어웨이 안착률(%)	67.5	69.0	+1.5
라운드당 버디(개)	4.2	4.56	+3.6
파5홀 성적(E)	4.67	4.63	-0.4
파4홀 성적(E)	3.94	3.93	-0.1
파3홀 성적(E)	2.9	2.95	+0.05

그린 적중시 퍼트 1.758개 리그 9위
병커 세이브율 45.31% 리그 78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39년 만에 신인으로 상급왕과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쓴 박성현(24)은 장기인 장타력은 더 살리고 약점이었던 정확성은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현은 이번 시즌 LPGA투어에서 장타 7위(평균 270.815야드)에 올랐다. 박성현의 장타력은 LPGA투어에 진출한 뒤 더 강력해졌다.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는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찍은 265.59야드에서 5야드 이상 늘었다.

LPGA투어 개최 코스는 페어웨이가 딱딱하고 잔디가 짧아 더 멀리 굴러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웃오브바운즈(OB)의 공포에서 벗어난 게 비거리 증가의 진짜 이유로 보인다.

드라이브샷 페어웨이 안착률도 지난해 국내에서 벌 때 67.5%보다 향상된 69%를 찍었다.

올해 박성현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버디 사냥 능력이다. 박성현은 올해 LPGA투어에서 라운드당 4.56개의 버디를 뽑아냈다. 톰프슨(4.67개)에 이어 2위다.

이런 버디 사냥 능력의 진화에는 파4홀과 파5홀에서 성적 향상이 숨어 있다. 박성현의 파4홀 평균 성적은 지난해 3.94타였지만 올해는 3.93타로 0.1타 낮췄다. 파5홀 평균 스코어 역시 작년 4.67타에 올해는 4.63타로 0.4타나 줄었다.

다만 파3홀에서는 지난해 평균 2.9타를 찍어왔던 박성현은 올해 LPGA투어에서는 2.95타로 0.5타 더 많이 쳤다. LPGA투어 파3홀이 국내보다 전장이 더 길고 난도가 다소 높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박성현의 약점은 그린 플레이로 알려졌다. 기록으로 본 그린 플레이는 투어 정상급에 가깝다. 박성현은 그린 적중 시 퍼트 개수가 올해 1.758개였다. LPGA투어에서 9위에 해당하는 좋은 기록이다.

베아트릭스 수상사 톰프슨은 장타(273.79야드), 그린 적중률(77.7%), 그린 적중 시 퍼트 개수(1.756개), 라운드당 평균 버디(4.67개) 등에서 모두 박성현에 앞섰다. 특히 톰프슨은 병커 세이브율 70.37%로 1위에 올라 78위(45.31%)에 그친 박성현을 크게 앞질렀다.

성공적인 루키 시즌을 보낸 박성현이지만 톰프슨을 제치고 최고 선수 자리에 오르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확인한 셈이다.

MLB 소식

오타니 내년 ML서 뛰다

ML 선수노조, 포스팅 시스템 개정안 등의

세계가 주목하는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3·닛폰햄 파이터스)가 내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22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포스팅 절차를 밟을 계획인 오타니로서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현재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소속인 오타니는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니어서 포스팅을 통해서만 메이저리그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양국 간 포스팅 규정은 지난 10월 31일자로 만료됐다.

이에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일본야구기구는 논의를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오타니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반기를 들었다.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타니의 현 소속 구단인 닛폰햄이 이적료 명목으로 최대 2000만 달러(약 223억1000만원)를 가져가는 데 반해 오타니는 그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만 23세인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규정상 포스팅 시스템을 거치더라도 FA로 간주하지 않고 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하는 마이너리그의 자격을 가진다.

계약금의 규모도 '해외 아마추어 드래프트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구단들은 해외 아마추어 선수들과 계약금 총액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를 어길 수 없다.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타니는 353만5000달러(39억4000만 원) 계약금에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53만5000달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선수노조는 여기서 발생하는 오타니의 불이익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만약 선수노조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도 발효가 늦어져 오타니의 내년 메이저리그 진출은 무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진통 끝에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오타니 측도 한숨을 돌렸다.

새 포스팅 시스템은 이제 구단주들의 최종 승인만 남겨졌다. 열흘간의 승인 기한을 고려하면 오타니의 포스팅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포스팅 이후 21일 안으로 계약을 해야 하므로 협상 마감일은 12월 22일이 될 전망이다. 오타니 정찰진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연합뉴스

“애틀랜타, 배지환 계약 무효”

MLB 사무국 “국외 FA 계약금 총액 규정 위반으로 징계”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배지환(18·경북고)이 맺은 계약을 '무효'로 선언했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배지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MLB 사무국은 22일 국외 FA를 영입하며 계약금 총액 규정을 위반한 애틀랜타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애틀랜타는 2015년부터 국내의 아마추어 FA를 영입하며 이번 계약을 했다. 올해도 국외 FA 선수를 영입할 때 계약금 30만 달러를 초과해 줄 수 없었지만, 30만 달러 이하로 발표하고 '뒷돈'을 약속하는 꼼수를 썼다.

MLB는 구단마다 국외 아마추어 FA와 아마추어 영입 총액을 제한한다. 상한선을 초과하면 2년 동안 국외 FA, 아마추어 계약금 최대 액을 30만 달러로 낮추는 징계를 내린다.

2015년 상한액을 넘겨 2016년에는 선수당 최대 30만 달러의 계약금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유망주 케빈 마이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번 계약을 했다.

MLB 사무국은 애틀랜타의 국제 스카우트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22일 징계를 확정했다. 이미 사퇴한 존 코포넬라 전 단장은 영구제명 처

분을 당했다.

애틀랜타의 국외 아마추어 FA 계약금 한도는 2019-2020년에 1만 달러로 제한된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지명권도 박탈당했다. 여기에 2015년부터 계약한 마이탄 등 유망주 12명이 FA로 풀렸다. 그리고 배지환의 계약은 무효가 됐다.

애틀랜타는 애초 “배지환과 3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배지환은 애틀랜타에 추가 금액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환은 다른 MLB 구단과 계약이 가능한 자유로운 신분이지만 많은 구단이 오타니 쇼헤이(일본)에 주목하고 있어 새 소속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장 KBO리그에 복귀하기도 어렵다. 배지환은 KBO 신인 지명회의가 열리기 직전 미국 진출 소식을 알렸다. 결국, 국내구단은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이 유력했던 배지환을 뽑지 않았다.

배지환은 애틀랜타와 계약이 무효로 선언돼 '해외 복귀 시, 2년 유예'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2차 1라운드 지명이 유력했던 선수가 돌고 돌아 KBO리그 구단과 육성 선수 계약을 하면, 타 구단이 반발할 수 있다. KBO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연합뉴스